

근대 역사 만나는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

20일부터 생생문화재사업 본격 추진... 교육·문화·역사 체험 투어 다채롭게 운영

익산의 근대 역사를 즐길 수 있는 생생문화재사업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이 오는 20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생생문화재 사업은 문화재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재발견하고, 지역문화 향유 기회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문화재청의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이다.

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간이역 구 춘포역사(국가등록문화재)와 구) 삼산의원(국가등록문화재), 구) 익곡수리조합 사무소와 창고(국가등록문화재) 등을 배경으로 교육, 문화, 역사 체험 투어를 선보인다.

특히 한국인의 생활사가 잘 남아있어 2019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받아 보존관리되고 있는 송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하며 적극 알릴 계획이다.

이달부터 11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철도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수탈의 아픔을 간직하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익산의 이야기를 이리열차에 담아 '이리열차타고 익산행' △기차길에서 찾은 이리의 향기 △레트로 감성 영정통거리 등 3가지 테마로 진행한다.

우선 20일 첫 시작으로 '레트로 감성 영정통거리' 프로그램이 익산역 앞 일대에서 펼쳐진다.

'레트로 감성 영정통거리'로 이리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변화가 영정통거리에서 독립운동가의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가며 태극우산 퍼



생생문화재사업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 포스터

포먼스, 샌드아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통해 생생한 4.4만세운동의 현장과 근대문화역사의 장을 체험해 볼 수 있다.

특히 구 삼산의원 일원에서는 근·현대 의상을 입고 페이스 페인팅을 할 수 있는 영정통

패션리더 행사가 열린다. 태극기 의병우산을 만들어 우리의 우산이 되어준 의병을 기념하고, 송리근대역사문화공간에 방문해 독립운동가 문용기 선생님을 기리는 묵념에도 참여할 수 있다.

아코디언 버스킹 밴드와 함께 하는 영정통동요 버스킹에서는 일제 강점기 시절 어린이뿐만 아니라 남녀노소가 함께 즐겨 부르던 동요를 감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6월에는 송리근대역사문화공간 일대와 구 삼산의원 일원을 거닐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1박2일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驛舍)로 일제강점기의 철도 역사, 춘포역에서 시작하는 '기차길에서 찾은 이리의 향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생생문화재사업 '이리열차 타고 익산행' 사전예약은 (www.마수리늘배움협회.com), 프로그램 일정 및 사전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의 문의는 주관단체 마수리늘배움협회(063-837-0088)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리열차타고 익산행은 참가자들이 우리 지역 근대문화유산의 소중함을 인식하며 지역의 문화에 친숙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사업"이라며, "익산의 근대적 가치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생생한 근대역사문화의 장이 될 것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1학생 1예술활동 발표 기회 제공

전북교육청, 제17회 푸른꿈 맑은생각 표현전 수상작 전시회 진행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학생 1예술활동 발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미술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교육청이 주최하고 전북중등미술교육연구회가 주관하는 '제17회 푸른꿈 맑은생각 표현전' 수상작 전시회가 18일~22일까지 전주교육문화회관 공감전시실(2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문예, 미술 등 다양한 예술 분야 초·중·고·특수학교 학생들에게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해 창의적인 생각과 정서를 표현하고 자긍심과 성취감을 높여 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공모 결과 시화, 회화, 조소, 디자인·영상, 공예, 설치미술 부문에 초·중·고·특수학생 1,149명이 응모해 총 170점이 입상작으로 선정됐다.

회화부문의 이명우(군산대성중 1)학생이 대상을 수상했다. 이 대회에서 최우수상 7명, 우수상 12명, 특선 50명, 입선 100명이



회화부문 대상 - 군산대성중1 이명우 학생 '이상한 세계의 다람쥐'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1학생 1 예술 활동 발표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학생들의 다양한 예술 표현활동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예술교육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서 찾아가는 무형문화유산 공연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국방부(장관 이종섭), 군산시(시장 김인준), 한국문화재단(이사장 최영창)과 함께 오는 6월 2일 군산예술의전당에서 '2023년 찾아가는 무형문화유산 굿(GOOD)보러가자'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굿(GOOD)보러가자'는 국립무형유산원이 2004년부터 전국 지방공공에서 운영해 온 전통공연 프로그램으로, 무형문화유산 보유자부터 용광(퓨전) 국악인에 이르기까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예술가들의 향연을 느낄 수 있는 문화의 장이다.

6월 2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에서는 군산시 산업단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연이 열린다.

국악인 오정혜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

에서는 △국가무형문화재 판소리 보유자 김일구의 적벽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진주 삼천포농악의 다채로운 가락, △국악연주가 김주홍과 노름머치가 선보이는 신명나는 대취타, △음악잡단 우리소리 바라지가 보여주는 무(巫)의식과 춤이 가미된 축원, △가수 송가인의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이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관람을 원하는 산업체 근로자는 오는 19일 오후 2시까지, 일반인은 23~31일 오후 2시까지 티켓링크를 통해 선착순(1인 2매)으로 예매할 수 있다. 다만, 산업체 근로자의 경우 티켓 수령 시 증빙서류(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필수 지참해야 한다.

/장은성 기자

예술담은학교 '도랑파랑 진로탐색 콘서트'

전북교육청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도내 9개 초등학교서 진행

전라북도교육청이 후원하고 '예술담은나라'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인 예술담은학교 '도랑파랑 진로탐색 콘서트'가 고창 공음초, 남원 서원초, 순창 적성초, 순창 금과초, 완주 소양초, 익산 이리남초, 전주 인봉초, 전주 화산초, 정읍 이평초 등 도내 9개 초등학교에서 펼쳐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4월 24일 전주 화산초를 시작으로 6월 16일까지 순창 금과초·풍산초등학교에서 진행되는 '도랑파랑 진로탐색 콘서트'는 학생들의 예술적 호기심 채움과 직업별 진로탐색 교수형 진작을 위해 준비한 찾아가는 소리 예술 콘서트다.

악기체험, 질의응답, AR콘텐츠 체험으로 구성된 참여프로그램과 각 분야 전문예술인이 펼치는 수준 높은 교감형 공연을 통해 예술분야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수요처 선택 프로그램으로 직업별 전문가의 진로탐색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유·

청소년의 꿈을 '인큐베이팅' 한다.

'예술담은나라'의 예술감독·지휘자로 활약하고 있는 이대정 감독은 "문화 혜택이 부족한 읍면지역 어린이를 우선으로 예술교육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배움과 감동이 있는 공연을 기획했다"며 "판소리, 퓨전국악, 영화음악, K-pop, 정통 클래식, 즉흥 재즈 곡까지 수준 높은 공연으로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공연"이라고 전했다.

한편, '예술 담은 나라'는 전라·충청지역에서 유일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재단법인 분류의 순수예술 비영리민간단체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다.

제작 연출자 관승연 사무국장은 '예술담은나라'가 개최한 모든 공연은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다시 볼 수 있는 무상공유 플랫폼인 '예술담은 곳간 / DAUM 검색'을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장은성 기자

부안청자박물관, 공예주간 행사 개최

전국에서 동시에 열리는 공예축제인 '2023 공예주간'이 부안에서도 열린다.

공예주간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전국 공예에 관련된 기관들의 축제로 전국의 공예 플랫폼과 갤러리,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및 문화예술기관들이 참여한다.

부안청자박물관은 19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보고 즐기는 부안청자박물관'을 주제로 청자 만들기 체험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부안지역 공예인들의 장터인 공예마켓은 오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현장에서는 부안도예가협회 청자할인 판매, 보안면 직거래장터, 청자타일 무료체험까지 우리박물관에 꼭 방문하여 눈으로 보고 손으로 즐기는 청자와 공예로 가득찬 공예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한국서각협회 진안지부 회원전 26일까지 개최

한국서각협회 진안지부(지부장 임채순)는 오는 26일까지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회원 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열네 번째 회원전을 갖는 이번 전시는 '나이테를 읽는 횡단(각자)편지'를 주제로 서각협회 회원 26명의 문자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임채순 한국서각협회 진안지부장은 "이번 전시회는 한토막의 나무가 작가의 손길로 완성한 문자예술 작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깊은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보이겠다"고 전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